

무더위 속 세균성 장염·수족구병 증가

8월 장염환자 2명 중 1명서 장병원성대장균 등 검출 수족구병 검출률도 100%...음식물·위생 관리 철저

폭염이 이어지면서 세균성 장염과 수족구병 등 여름철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17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장관감염증 원인 병원체 분석결과,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은 6월 35.1%(208건 중 73건), 7월 37.0%(192건 중 71건), 8월 첫째 주 47.9%(48건 중 23건)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96%(22건)가 장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으로 나타났다.

장관감염증은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를 통해 구토, 설사, 복통 등 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장병원성대장균은 오염된 육류나 채소, 살모넬라균은 달걀·우유·육류 및 가공품이 주요 감염원이다. 따라서 이들 식품의 보관, 손질, 조리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족구병 검출률도 5월 이후(87.9%)로 주춤하던 수족구병 검출률도 7월 중순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여 8월 첫째 주 검출률이 100%(11건 중 11건)로 확인됐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잡히며 고열과 인후통이 대표 증상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수포·진물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장난감 등을 만질 때 쉽게 감염된다. 특히 실내수영장이나 계곡 등 물놀이 활동이 많

아지면서 엔테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환자 접촉 등을 통해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다.

강경리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 질환 과장은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 세균 증식이 빠르게 일어나 음식물이나 조리환경 위생에 소홀할 경우 장염에 걸리기 쉽다"라면서 "무더위가 지속하면서 장염, 수족구병뿐만 아니라 눈병이나 식중독 등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 관리청 주관으로 매주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장관감염증, 수족구병 등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검체로부터 원인 병원체를 분석하는 감시사업을 수행 중이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내년 5·18 기념행사 주최 놓고 공법3단체-시민단체 또 신경전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묘자회)간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이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공법 3단체가 '특정단체가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공법3단체가 5·18기념재단, 순수한 시민단체들과 새로운 행사를 구성하겠다"며

서 기존 행사위와 참가단체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공법 3단체가 간담회에서 제기한 '광주 지역 일부 시민 단체가 행사위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공법 3단체가 지목한 단체는 광주·전남 진보연대다.

행사위는 "출범 30주년을 맞은 행사위는 올해 현재 62개 참여 단체로 시민사회, 여성, 통일, 노동, 장애인 등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며 "지난 23년간 행사위 상임위원장은 5월 단체와 재단이

시장 출신 17명, 지역 원로 출신 6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위는 "무책임하게 행사를 탈퇴하고 행사를 특정단체와 세력이 독점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부상자회와 공묘자회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사위는 묵묵히 43주년 5·18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44주년 5·18 행사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공법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묘자회와 (사)특전사 동지회가 지난 2월 19일 진행한 '공동선언식'이 도화선이 됐다.

5·18 가해자인 특전사 단체가 별다른 사죄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5·18공법단체가 대담 특전사동지회 손을 잡고 '용서와 화해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붕괴 우려' 목포 5층 건물 철거된다

시-소유주 합의...9월 중 완료

붕괴 우려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목포시 호남동 5층 복합건물이 결국 철거된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와 소유주 간 합의를 마치고 33년 된 5층 복합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지난달 14일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급이 가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됐었다.

애초 목포시는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건물 소유주들은 지난 11일 건물 소유주 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철거업체와 계약을 마쳤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목포시에 제출한 뒤 심의가 끝나는 대로 해체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9월 중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별금형 비위 의원 징계 안하면 투쟁"

공무원 노조 광주 북구지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한 소심에서도 별금형을 선고 받은 광주시 북구 기초의원회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북구의회는 "기초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줄어들어 오명을 씻는다"며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실상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의원

들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유급 휴가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지부는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구청이 발주한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 2곳이 수의계약으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김영래 감사관 임용

광주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3급)에 김영래(사진) 교육부 서기관을 오는 9월 17일자로 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임 김영래 감사관은 교육부 사학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사립대학감사 담당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관 임기는 2년인데, 현재 교육부 소속인 김 감사관은 의원 면직을 하고 시교육청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개방형 직위의 경우 3개월 전 복직을 희망하면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

김 감사관은 "혁신적 포용교육 실현을 위해 각

급 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책 성과를 훼손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갑질, 성 비위 등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운영, 감사·진정·비위·청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공직기강 확립 업무, 각급기관 감사의 수감·지원 및 결과처리 등 직무를 수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북구, 고독사 예방 커뮤니티형 주거복지 활성화

광주 북구가 은둔형 취약계층 주민에게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주거복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은둔형 취약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북구는 "오는 28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형 주거복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

리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북구에 있는 14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2월까지 회당 10여 명의 참여로 매주 1~3회 펼쳐진다.

참여를 원할 경우 영구 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또는 북구청 주거통합돌봄과(062-410-8828)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얼음 동동 미숫가루 드세요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에서 17일 북구청 직원들과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주민들에게 시원한 미숫가루를 나눠 주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대한사협회 심의제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